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기념하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5남·7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다음 주 동호회 시간에 버려진 키보드(컴퓨터 자판)와 광고판으로 핸드폰 줄을 만드는 공작활동을 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40명이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식당에서 시작합니다.

배봉하 씨(배근수/김금순 권사의 아들)가 10월 8일(토)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잠실 풋살경기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합니다.

침묵기도 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혜경B김수진B강성식 유순봉 박영희
 10/9 식 당 봉 사 : 김금순 강순배 박영신 이소혜 김진경 장재영 최숙화
 오늘설거지봉사 : 이광욱 전충길 장성호 박시내
 다음 주 설거지 : 이지훈 한대훈 안 현 하진채
 새 교 우 : 윤경열 (청년부) 김영아(4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서면

강진규

가을 하늘 아래 서면

화살처럼 쫓히는 햇살에 맞아

늘

아프고 부끄럽더라

얼마쯤 잊어버린 죄책감을 꺼내어

맑은 물에 새로이 행귀

깃대 끝 제일 높이 매달고 싶더라

크신 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팬찮다

팬찮다고 속삭일 때까지

밤새워 참회록을 쓰고 싶더라

찬 양	새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큰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이에게도 귀한 것을 대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다함께 : 아멘. 성찬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의 상처와 자존심만을 생각하던 좁은 마음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원수에게까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큰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10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오재환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이근식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홍복선 권미숙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세계성찬주일 성찬식 순서

(보좌위원들은 성찬대의 보를 걷은 후 떡과 포도주 그릇의 덮개를 연다)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즐거운 잔칫상입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우리 주님의 잔칫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회 중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니.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눔)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아멘.

분급 / 집례자와 보좌

- 모두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 중에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를 찬양합니다.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온 교회와 더불어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